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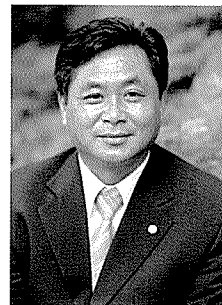
회원들 신뢰로 실속 사업 펼치는 광주광역시지회

헌신적인 지회와 적극적인 회원의 찰떡궁합!



가지가지 뻗어 있는 강줄기가 모여 커다란 바다를 이루듯 전국의 지회지부가 모여 (사)대한제과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베이커리>는 전국 지회지부의 왕성한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지회지부 탐방'을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그 여덟 번째 만남으로 다양한 사업 전개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광주광역시지회를 찾았다.

글 · 허윤정 기자 | 사진 · 주현진



이기남
광주광역시지회장

지방 도시의 지회·지부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제과점 수가 많지 않아 효율적인 협회 운영이 쉽지 않다. 광주광역시지회는 이 같은 어려움을 뛰어넘어 다각적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범 지회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에 위치한 지회 사무실에 상근하는 3명의 직원 모두 많은 업무량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다. 정기적인 봉사 활동,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각종 행사, 최근 위탁업체에게 인수하기 전까지 직접 경영했던 사업부 업무까지 일일 스케줄이 빽빽하다.

“지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이뤄집니다. 전화 섭외나 구두 진행은 있을 수 없죠.”

이호성 상무가 밝힌 철저한 행정 시스템은 광주광역시지회 업무 처리의 기본이다.

이와 같은 광주시지회의 완벽주의 업무 스타일은 이기남 지회장의 꼼꼼한 성격에서 비롯됐다.

“지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당연히 회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작은 부분에도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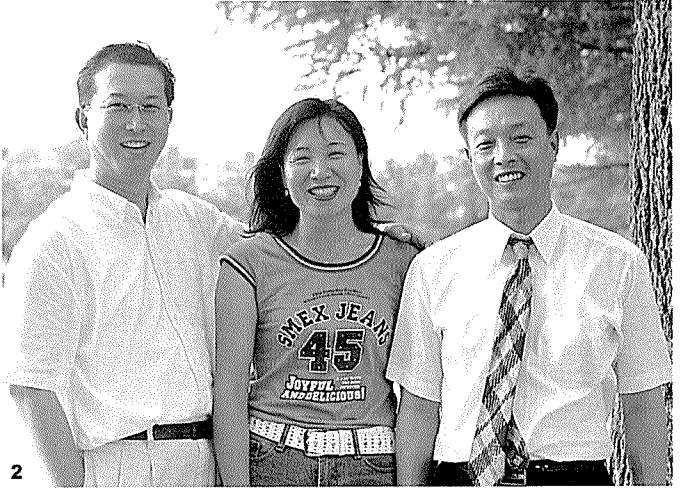
이기남 지회장은 어떻게 하면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며 확실하고 투명한 행정을 철칙으로 여기고 지키기 때문에 임원들의 든든한 신임을 얻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발로 뛰는 임원들이 이룩한 든든한 지회

지회 실무를 도맡고 있는 6명의 부지회장의 직함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다. 각각 맡은 업무에 대해 정기 총회나 회의에서 확실하게 발표해야 하므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현재 부지회장들은 각각 사업부 운영, 행정 및 의전, 과우봉사회, 위생지도, 과우산악회, 기술지도 등의 책임을 맡고 있다.

이 중 성공 사례로 꼽히는 사업부 운영은 광주광역시지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사업부의 주업무라 할 수 있는 '과우 신용협동조합(이하 과우신협)'은 제과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과인들의 '쌈짓돈'을 모아 출자했다. 내실 있는 경영을 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과우신협은 제과인 뿐 아니라 광주시내 상인들까지 가입해 현재 '빛고을 신용협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정식으로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 제과인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제과인 출신을 고수한다고, 제과인들에게는 특별 우대 해



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과점 오픈과 관련한 신용대출 또한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어 그야말로 어려운 경기로 자금이 부족한 제과인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형식적인 연례행사가 아닌 몸소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과우봉사회' 역시 주목받는 모임이다. 대부분의 지회 임원들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어 이와 연계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정기적인 양로원 방문은 물론이고 각종 명절 때마다 장애인과 불우 이웃들에게 빵을 제공하는 등 진심어린 봉사를 실천한다.

패스트푸드점, 편의점도 제과협회 식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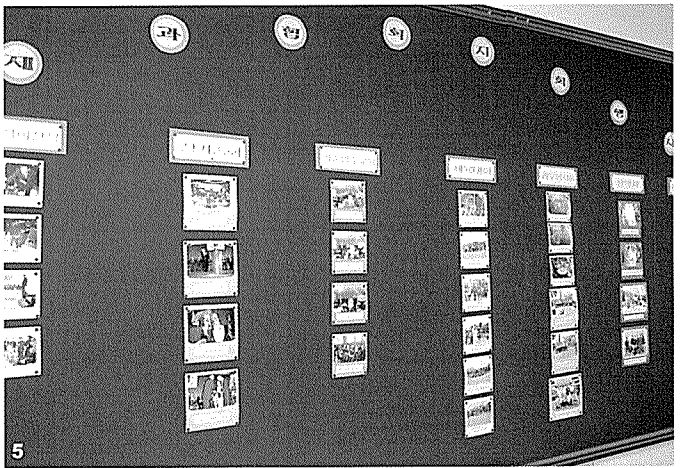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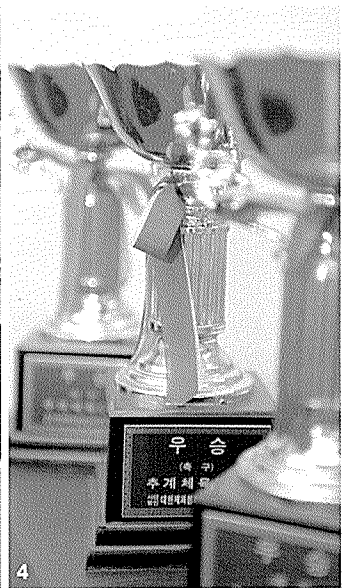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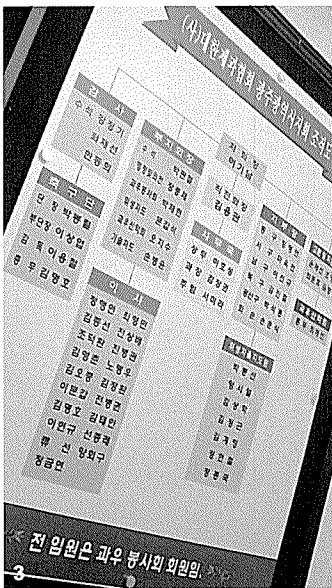
광주광역시지회의 회원수첩을 들여다보면 '롯데리아', '미니스톱' 등 낮익은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이름이 눈에 띈다. 이들은 모두 제과협회 준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어떻게 이들 점포까지 회원으로 등록했을까?

“그 점포에서도 다 빵을 팔지 않습니까? 빵 팔면 당연히 제과협회에 등록해야죠.”

이기남 지회장은 간단하게 궁금증을 풀어주고 호탕하게 웃는다. 이쯤 되면 '회원 가입률 100%'라는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가입률 뿐 아니라 결속력에서도 100%를 자랑하는 회원들의 적극성은 산악회, 축구회 등 친목 모임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결성된 지 10년이 지난 산악회는 일주일에 한번 씩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하고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는 먼 산으로 산행을 떠난다. 축구회 역시 일주일에 두 번 씩 모여 축구를 하는데 20명의 축구회 회원 중 15명 이상이 꼬박꼬박 참석한다.

회원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광주광역시지회와 지회를 믿고 따라주는 회원들 사이에는 탄탄한 믿음과 따뜻한 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광주광역시지회의 앞날의 기상 예보는 언제나 '맑음' 일 것이다. ㉞



1. 임원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각자 담당한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광주광역시지회의 숨은 일꾼 김창권 과장, 서미라 주임, 이호성 상무(사진 왼쪽부터).
3. 광주광역시지회는 철저한 분업화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자 맡은 업무를 상세히 적은 조직도.
4.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체육대회의 트로피.
5. 활동이 많은 만큼 지회의 이모저모를 담은 널찍한 게시판도 각종 일정으로 가득 차 있다.